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선교 지향> 신앙 전수를 위한 활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문화와 대화하는 가운데 현시대의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12 월 25 일성탄미사, 1 월 1 일 신년미사 시간은 오전 11 시 입니다.
- ※ 성탄 미사중에 2 차 헌금이 있습니다.
- ※ 10 차 미 동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
일시- 1 월 27 일 오후 4 시 부터 1 월 30 일 오후 3 시까지
장소- 애틀랜타 이나시오 피정의 집
참가비-\$400
신청마감-1 월 15 일(선착순 40 명)

[잭슨빌]

- 성탄절 꽃북헌과 달력 제작을 위해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8 년 세무보고서 양식과, 2019 년 교무금 책정서 테이블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 성탄의 연말결산과 새해예산을 위해 교무금 완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인즈빌]

- 12 월 29 일 미사후에 공동체 송년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결산과 새해예산 책정을위해 교무금을 완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년 교무금 책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201	-	-	-	\$201
잭슨빌	\$297	\$1,630	-	\$440	\$2,367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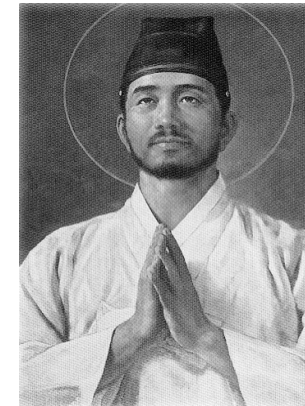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삼바오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미카 예언자는 부도덕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도래하시는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계획에 기쁘게 순종하며 자신을 내놓는 사람들을 활용하십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 작은 지파인 유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다윗 가문!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로 수도인 예루살렘보다는 오히려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두 번, 동물이나 봉헌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심으로써 성전에서 바치는 그런 예배 행위는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요한 4,24)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데 가장 합당한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서둘러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떠납니다.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걸어가는 여정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순종한 마리아는 세례자 요한의 출산을 준비하는 사촌 엘리사벳을 돌봄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힘든 처지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기쁘게 봉사하는 참된 ‘주님의 여종’, 이웃에 대한 배려가 가득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8. 찬미하여라 >





대림 제 4 주일

[제 1 독서] 미카 예언서 5 1-4 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화답송] 시편 80(79),2 ㄱ ㄷ ㄹ ㄱ 3 ㄴ ㄷ .15-16.18-19(◎ 4)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주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 2 독서] 히브리서 10,5-10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1,39-45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12/22)	이호석 레오폴드	이재원 엘리사	하이흔 율리아	-
	잭슨빌 (12/23)	윤미임 데레사	서정원 헬레나	손활란 안나	함동진 안드레아 함두순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12/25)	-	-	-	-
	잭슨빌 (12/25)	이교순 카타리나	송재민 하상바로	천창준 레오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미 사 성 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469	197	464	27
잭슨빌	91	340	504	90